

# 호남에서 ... 金, 투쟁의 길 묻고 ... 安, 세력화 길 찾다



‘민중·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29일 오전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 임내현 광주시장 위원장, 이용섭 국회의원, 박지현 전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해진 최고위원,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광주·전남 토크 콘서트'

### 채동욱 찍어내기·복지공약 후퇴 강력 비판 “민생회복 위한 민주당 투쟁 지지 보내달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서 ‘지역 순회투쟁’을 이어가며 국정원 개혁과 민생회복 등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7일로 ‘풍찬 노숙’ 생활 한 달을 맞은 김 대표는 27일과 28일 전북에서, 29일과 30일은 광주와 전남에서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좌우 투쟁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전국 순회투쟁 6일째인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무등산을 찾아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오후부터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정오 여수수산시장, 오후 3시 해남읍 하나로마트, 오후 5시30분 무안 생태갯벌살리기 현장을 찾아 ‘노숙자 김한길의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행사들은 애초 가두연설로 기획됐으나 민주당이 27~28일 전주와 광주에서 가진 콘서트에서 호응이 좋았다고 판단, 급히 형식을 바꿨다. 30일 전남대 특강을 비롯한 향후 일정도 콘서트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벼운 행사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은데다, 내부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김한길과 사람들’ 등 토크쇼를 진행할 바 있고, 사회

를 맡은 박광은 홍보위원장은 방송 앵커 경력이 있어 관심을 끌기 쉽다는 점도 고려했다.  
콘서트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해남 콘서트에서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리가 지고 박 대통령이 이긴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추석 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속마음을 본 국민이 ‘불통 대통령은 안 되겠다’고 심판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입맛에 맞지 않다면 찍어낸다면 누가 남아있겠느냐. 저도 겁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민중·민생살리기 전남지역 국민결의대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8일 오후에는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장에서 ‘즉석 현장 토크 콘서트’를 갖고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등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과정, 한 달 넘게 노숙투쟁을 벌이며 느낀 점 등을 300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답답하게 얘기하

며 시민과 소통에 주력했다.  
특히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 “지난 정권에서 법인세를 감액해 준 것만 2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1년간 우리나라 모든 대학 졸업생에게 창업 지원금 1억원씩을 줄 수 있는 돈”이라며 ‘부자감세’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숙박한 뒤 30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출간기념회에 참석한 후 광주로 돌아와 전남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갖고, 이어 지역 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잇따라 만났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7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와서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모두 포기하면 이를 믿고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을 당한 거나 다를 없다”면서 “앞으로 닦쳐줄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경연장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9일 광주 서구 차평동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지역 1차 실행위원 4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실행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무소속 안철수 의원 광주·전남 조직 '윤곽'

### 조직 실행위원 광주 16명·전남 27명 명단 발표

### 민중 탈당인사 포함 ... 새 정치·지역 대표성 문제도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전남의 정치 기반을 다질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연구소)은 29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정치세력화를 담당할 조직 실행위원 43명(광주 16명·전남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현재는 정당이나 연구소 산하 실행위원이기 때문에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선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며 “혹시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선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민들에게 검증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실행위원은 호남에 국한됐다. 윤 팀장은 이에 대해 “호남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중에 전국 광역단위 실행위원을 임명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수권 정당이 될 때까지는 이념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함께 실행위원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칫, 안 의원이 지지도가 높은 호남을 불모로 정치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행위원회 어떤 역할 하나=대표성을 가진 공조조직이 구성된 만큼 산재해 있던 안철수 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 정치의 구심점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행위원들은 ‘안철수 신당’을 만드는 데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행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 영입활동은 물론 지역민이 공감하는 비전과 의제 설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날 전직 장관·장성급의 자문위원, 정부적 뇌와그룹 격인 기획위원들을 각각 발표했다.  
자문위원 23명 가운데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서양원 예비역 해군 중장과 운영관 전 외교부장관, 이근식 전 행정부 장관, 이봉원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포함됐다.  
기획위원으로는 강인철·김태성·조광희 변호사 등 지난 대선부터 안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한 법조인 그룹과 이윤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태규 전 진심캠프 미래기획실장, 정기남 전 KSO(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황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8명으로 구성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은 실행위원 43명 명단.  
◇광주  
▲북구=곽복불·김병도·나기백·박미경·범희승·송재형·장영국 ▲서구=신현구·진재영 ▲동구=오형근·임택 ▲남구=윤영국·이해명 ▲광산=김옥봉·서중진·이용빈  
◇전남  
▲화순=구복규·김성인·박광재 ▲여수=김동채·김민곤·남태홍·주철현 ▲목포=김성수·김종희 ▲순천=박광호·안세찬·정표수 ▲광양=박두규 ▲나주=김종운·안희만·이광형·이기병 ▲해남=윤광국·윤재갑 ▲합평=이윤성·정상진·정현철 ▲장흥=이제석·정준수 ▲구례=유준용·이주희 ▲영암=조응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강과산, 바다와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청정 땅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정남진 편백수 우드랜드  
내차로 떠나는 가장 빠른 제주여행 초고속선 오렌지호  
201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불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대표전화 : 061-860-0373  
2013.10.25[금]-10.31[목] 7일간 전라남도 장흥군 현관산 일원  
대표전화 : 061-864-7002  
대표전화 : 061-864-0063  
대표전화 : 1544-8884  
장흥군